반딧불이 서식지로 떠나요

무주반딧불축제 반딧불이 신비탐사, 27일~9월 4일까지 접수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8월 27일~9월 4일) 반딧불이 신비탐사를 위한 생태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올해도 자연에서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신비탐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달빛, 별빛을 길잡이 삼아 한적한 시골길을 걸으며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반딧불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족도 부문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에서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인터넷 접수(www.firefly.or.kr)와 현장접수(당일 10:00~18:00)를 통해 참여(셔틀버스 승강장 접수 시 안내)할 수 있으며 체험비는 인당 8천 원(36개월 미만 무료)이다.

8월 말에서 9월 초는 늦반딧불이가 주로 활동을 하는 시기로 늦반딧불이는 6월에 활동을 하는 애 · 운문산 반딧불이에 비해 개체 크기가 크고 발광력도 좋아 탐사 재미가 좋다는 장점이 있다.

군 반딧불이 연구소 정재훈 연구사는 "환경지표곤충이자 천연기념물 제322로 반딧불이는 기후나 습도 등 자연환경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탐사 당일의 일기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를 동반하지만 반딧불이 서식지로 직접 가서 반딧불이의 발광과 비행을 즐겨 보는 재미 때문에 반딧불축제 프로그램 중 선호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으로 꼽힌다"며 "탐사객들의 안전과 만족을 위해 출몰지역 조사부터 탐사로 정비, 탐사여정을 챙기는 일까지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최우수'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성공적 운영 인정

완주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유종화)가 2015년과 2016년 상반기 실적을 평가한 2016년 전북도 14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년에 한번 전국 197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성가족부 평가에서도 2014년 A등급 획득, 도내에서 최고등급을 받은 바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16년 7월 1일부터 29일까지 1차 서면평가, 2차 현장검증, 3차 최종확인의 순서로 위기청소년지원 기반조성, 센터의 사업 인프라, 센터 운영 성과, 센터 운영 사례 등 4개 분류 13개 지표의 영역에서 이뤄졌다.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통합관리, 센터 운영 성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선정됐으며, 기관표상금 300만원으로는 재량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유종화 소장은 "진정성 있게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센터 상담원들, 107곳의 1388청소년지원단과 기쁨을 함께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하반기에도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학교폭력 예방사업,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으로 완주군의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장수군 산서면 시장마을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장수군 산서면 시장마을이 산림청이 주관하는 '2016년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로 선정됐다.

장수군 산서면은 최근 산서면 동화리 시장마을 회관에서 배형근 산서면장과 마을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식'을 가졌다.

시장마을은 산불방지를 위해 마을내 불법 소각을 일절 금지해왔으며 마을 방송 및 순회교육을 통해 소각 근절에 앞장서 왔다.

배형근 면장은 "산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이 논·밭두렁 소각 않기, 농산폐기물 소각 않기에 마을 전체가 참여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서 "앞으로도 산불예방에 앞장서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홍삼축제 D-50 기념 페이스북 경품이벤트 진행

진안군은 2016 진안홍삼축제 D-50일을 맞이하여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1일간 페이스북 경품이벤트를 진행한다.

군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jinangun) 댓글에 친구를 태그하고 진안홍삼축제 소식을 전하면 추첨을 통해 총 70명에게 홍삼스파 이용권, 홍삼절편 등 다양한 홍삼 관련 제품을 증정한다.

현재 진안군 공식 페이스북 팬은 1만 2,500명 이상으로 축하 및 응원 댓글과 친구 소환, 게시글 공유 등을 통한 홍삼축제 참여와 진안고원에 대한 친밀도 증대가 기대된다.

진안홍삼축제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마이산북부 마이돈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되며 6개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광객을 맞을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선정

3년 간 국 · 도비 43억 확보
안전으뜸도시 조성 기반 마련

완주군이 국민안전처 주관, 안전한 지역사회만들기 모델사업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지난 4월 국민안전처에서 공모한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완주군은 전국 17개 시군구 지역 중 가장 모범적인 계획안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3년간 43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은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사회가 협업해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을 목표로 지역별 확산 거점 역할을 수행할 전국 17개 시군구를 모델지역으로 선정·육성하는 사업이다.

3년간 매년 특별교부세를 8억 ~ 12억을 지원해 안전인프라 구축 및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고자 한다.

완주군은 중점개선구역으로 선정된 삼례시장 주변, 우석대~완주우체국구역, 삼례초등학교 주변, 한별고등학교 주변 등에 대해 교통·화재·범죄·자살·감염병 등의 5대 중점분야에 안전인프라 개선사업 및 안전문화운동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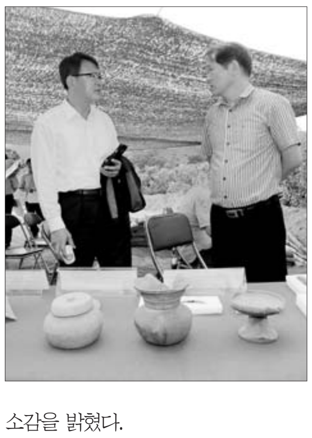
이에 보행자 통행안전, 화재 시 초기 신속대응 및 화재예방, 여성·청소년 등 사회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 자살자의 사회적 인식 전환 및 보살핌, 감염매개체의 원천 차단 등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충식 재난안전과장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연간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대폭 줄여 안전으뜸도시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장수 노하리 가야고분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관내 가장 이른시기 추정 석곽묘 확인



장수군은 지난 19일 장수읍 왕대마을 발굴현장에서 장수 노하리 가야고분 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가졌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의 지원을 받아 (재)전주문화유산 연구원(원장 유철)과 진행된 이번 발굴조사는 총6기의 석곽묘가 확인됐으며 유구의 많은 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닥 층이 온전하게 남아있어 다량의 유물이 확인됐다.

특히 3호 석곽묘는 주구가 확인됐으며 그 내부에서 많은 토기류가 폐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마한의 분구묘적 특징을 나타내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곽장근 군산대학교박물관장은 "3호 석곽묘의 묘제형태와 토기양상으로 볼 때 장수지역일원에서 확인된 가야계 고분중에서 가장 빠른 시기로 추정되며 마한에서 가야로 넘어가는 시대적 특징을 잘 보여줘 종합적으로 그 시기를 4세기 후반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주헌 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재지계, 백제계, 금관가야계, 소가야계, 대가야계 등 다양한 토기가 혼재된 양상을 보이며, 일부 광구장경호에서 볼 수 있는 세밀하게 시문된 파상문의 형태는 일본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당시의 교류사를 정립할 수 있는 중요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 외에도 이번 발굴조사에선 철겸, 철모, 철부, 철촉, 살포 등 다양한 철기류와 금귀걸이 한 점이 출토됐다.

김윤섭 부군수는 이날 현장을 방문해 앞으로도 장수지역의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기울여 장수가야의 위대함을 꼭 밝혀내 세계유산등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성빈 도의원도 발굴조사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가야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와 가치증명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경찰 설천파출소, 주민 밀착형 범죄예방활동 전개

무주경찰서 (서장 최성규) 설천파출소(소장 양희용)에서는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자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설천파출소 양희용 소장은 매일 홍보테마를 설정하고 면사무소, 농협, 우체국 등 다중이 운집하는 장소를 방문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대민 밀착형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특히 4대 사회악 중 지역 안전도 측정의 척도가 되는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3대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집중 전개하는 한편 우리 지역은 이들 폭력으로부터 안전 하다는 안심치안 홍보를 병행 함으로써 지역민들로 하여금 보다 안전한 의식속에 생업에 종사할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의 활동을 접한 주민들은 안전한 지역 사회 만들기에 적극 동참할 뜻을 전하기도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 반딧불 농 · 특산물 전국 소비자에 손짓

추석 맞아 우체국 쇼핑몰 · 사이버 장터 이벤트 진행

무주군은 추석을 앞두고 우체국 쇼핑몰(mall.epost.go.kr)에서 무주군 특별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체국 쇼핑몰이라는 안정적인 판매망을 통해 무주 반딧불 농 ·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9월 7일까지 무주군 전용관이 개설돼 운영되며 2~5천 원 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특산품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추첨행사도 진행하며 판매를 촉진시킬 방침이다. 별도의 전단지를 제작 · 발송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 농업마케팅 강명관 담당은 "무주반딧불농산물의 우수성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잠재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며 "한 번 주문해보고 맛본 고객들은 또 다시 무주 반딧불 농 · 특산물을 찾으실 수 있도록 최고의 제품, 최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서 직영하는 반딧불사이버장터(www.mj1614.com)도 8월 30일부터 9월 12일까지 추석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이버장터 이용 금액 별로 10만 원 이상 이용객 50명에게는 된장(1kg, 25명)과 간장(1.5l, 25명)을, 30만 원 이상 고객 25명에게는 오미자 농축액(1,000㎖)을, 50만 원 이상 구매고객 20명에게는 야생화 꿀(2.4kg)을, 70만 원 이상 구매고객 10명에게는 반딧불쌀(20kg, 1포대)을 사은품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보건소 '잇몸 만들기 치주센터' 호응

완주군 보건소(소장 박현선)는 '으뜸 완주 잇몸 만들기 치주센터'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주민들을 위한 잇몸병 관리와 치료를 위해 지난 6월에 문을 연 '으뜸 완주 잇몸 만들기 치주센터'에 주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치주관리 프로그램은 구강건강 상태에 따라 2주 간격으로 3회~5회 운영되며 입속 세균 관찰, 구취측정, 구강건강관리 교육, 구강관리능력검사를 비롯해 잇몸 집중관리를 위한 전문가 칫솔질(와타나베), 스케일링 등 치주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현선 보건소장은 "치주질환은 전신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심근경색, 동맥경화증, 치매가 발생하는 확률이 높다는 통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치주질환에 관심이 있으신 완주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30대~50대 희망자께서는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으니 완주군보건소 구강보건실(290- 3027~8)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은 치주질환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이 외래 10대 질병 중 2순위로 매년 사회적 진료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진안 부귀농협 마이산김치, 국회의사당 첫 납품

진안 부귀농협은 포기김치를 비롯해 3종의 김치 400kg을 국회의사당에 납품하고 부귀농협 마이산김치 가공공장에서 납품기념식을 가졌다.

진안군 부귀농협(조합장 정종옥)에서 생산되는 '마이산김치'가 지난 22일 국회의장공관과 국회의사당 식당 3곳에 첫 납품됐다.

이날 부귀농협은 포기김치를 비롯해 3종의 김치 400kg을 국회의사당에 납품하고 부귀농협 마이산김치가공공장에서 납품기념식을 가졌다.

이번 납품은 국회의사당 식당 3곳에 전통방식으로 담근 '마이산김치'를 공급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회의사당에 납품하기로 했다.

부귀농협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관심과 배려로 납품이 성사되어 이번 김치 납품을 하면서 브랜드 가치 향상과 경영정상화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항로 군수는 "부귀농협 김치납품을 시작으로 진안고원의 청정 진안농산물 전 품목이 국회의사당 식당에 납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옥 조합장은 "모든 재료를 우리 농산물만 엄선해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신뢰를 받고 있다"며 "정치일번지 국회의사당 식당에 김치를 납품하여 국회의원님들과 국민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사해 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최고의 김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부귀농협은 김치가공공장 출범 초기부터 원산지 관리 우수지정업체로서 우리 농산물만을 엄선해 사용하는데다 화학조미료 대신 천연조미료만 사용하기 때문에 감칠맛과 깊은 맛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여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경찰 천천파출소 직원 순찰중 화재발견 초동진화

장수경찰서(서장 윤중섭) 천천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이상운 경위 황영택은 지난 22일 오후 2시 40분경 112순찰근무중 춘송리 장양마을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쓰레기를 태우다 남은 잔불이 부근의 야산과 주택으로 번져가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화재신고를 하고 곧바로 112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와 부근의 양동이를 이용 신속하게 화재를 진화하여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이날 이경위와 황경위가 초동진화를 하지 못하였다면 부근의 독거노인 주택과 야산으로 불이 번져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을 주의 깊게 살피는 112순찰로 화재를 예방할수 있었던 것이다.

/장수=고판호 기자